

한국 거문고와 프랑스 음악이 만나다

이정주·페데리코 펠레그리니
듀오 '문고고' 30일 문화전당 공연



한국-프랑스 듀오 그룹 '문고고'의 공연 모습. ©Marie Monteiro

거문고 연주자와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가 만든 새로운 음악을 접할 기회가 마련된다.

거문고 연주자 이정주와 프랑스 페데리코 펠레그리니의 듀오 그룹 '문고고(MOON GOGO)'가 전국 순회공연의 하나로 오는 30일 오후 5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2에서 광주 공연을 연다.

지난 2013년 시작된 '문고고'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영역의 음악세계를 만들어내며 프랑스 등 유럽에서 공연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문고고는 2015년 첫 앨범 '인터내셔널'을 내놓은 뒤 지난 1월 두 번째 앨범 '조이'를 발표했다. 이번 앨범에는 사운드 엔지니어 올리비에 발로아가 합류해 에너지 넘치는 음악을 선보였다. 9곡으로 구성된 이 앨범의 표제곡 '조이'는 프랑스 인터내셔널 라디오 플래이스티스에 선정됐다.

포크 일렉트로, 펑크, 블루스 등 다양한 장르가 결합된 이들의 음악은 짜임새 있는 연주 속에서 관객을 압도하는 반향기를 느끼게 한다.

중요무형문화재 16호 '한갑득류' 거문고 산조를 이수하고 전남도립극단에서 10년 동안 활동한 이

정주는 지난 2008년 프랑스 낭트로 옮겨 국악의 기법과 소리를 살린 창작 활동을 벌였다. 프랑스의 한국단에서 연기도 하는 그는 문고고 뿐만 아니라 콘트라베이스 즉흥 음악 그룹이나 월드뮤직, 일렉트로닉 음악 그룹과 협업해 작업하고 있다.

페데리코 펠레그리니는 1990년대 프랑스의 대표적 인디그룹 '더 러버스 레비츠'에서 노래와 작곡을 맡

아 활동했다. 그는 시각예술 등을 음악에 결합하며 실험과 파격을 통해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8 문고고 조이 한국투어'는 29일 경기도 부천 공연을 시작으로 다음 달 7일까지 전주, 대전, 서울 등 7곳에서 펼쳐진다. 전석 무료. 문의 1899-5566.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시향이 엄선한 음악가·연주자 소개합니다

21일 문예회관 '음악신보' 첫 선
양성원 '5월, 광주' 초연



지휘자 김영연 피아니스트 양성원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엄선된 음악가와 연주자들을 소개하는 기획 '음악신보'를 21일부터 선보인다.

'음악신보'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평론가로 활동했던 슈만이 '음악신보'를 통해 멘델스존, 쇼팽, 브람스 등 당대의 음악가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작품을 알렸던 잡지다.

광주시향은 슈만의 '음악신보'처럼 다채로운 음악가들과 연주자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21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첫 무대 '정화의 밤'에서는 김영연 광주시향 부지휘자가 지휘를 맡았다.

공연은 먼저 오스트리아 작곡가 안톤 베베른의 '파사칼리아, 작품1번'으로 문을 연다. 베베른이 쇤베르크 문하생으로서 마지막으로 작곡한 관현악을 위한 '파사칼리아'는 쇤베르크 문하생으로서 마지막으로 작곡한 졸업 작품이다.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에서 영감을 받은 '5월, 광주'가 초연된다. '5월, 광주'는 1980년 5월 16일 '민주화대성회'를 시작으로 27일까지 열흘 동안의 급박했던 항쟁을 피아노 협주곡으로 묘사했다. 이 작품은 광주문화재단의 '임을 위한

행진곡' 세계화 사업의 하나로 사단법인 한국작곡가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 박영란이 만들었다. 이번 무대는 피아니스트 양성원이 협연한다. 한국음악협회 콩쿠르 대상 및 장관상을 수상한 양성원은 열정적이면서 섬세한 연주 실력을 인정 받으며 미국, 유럽 등 국내·외 200회 넘는 초청연주를 다녔다.

마지막은 리하르트 쇤베르크의 연작시 '두 사람'을 소재로 작곡된 쇤베르크의 '정화의 밤, 작품4번'으로 장식한다. 오스트리아 작곡가 쇤베르크는 조성이 없는 '무조음악'을 만들어 낸 현대음악의 혁명가로 평가되고 있다.

전석 1만원(학생 5000원). 문의 062-524-5086.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임방울국악제' 대상 판소리 명창부 정상희씨



'26회 임방울국악제' 대상은 판소리 명창부 정상희(39·서울·사진)씨가 차지했다. 사단법인 임방울국악진흥회는 지난 1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1에서 막을 내린 '임방울국악제'에서 춘향가 중 '조경이경'을 부른 정상희씨를 대우명창인 대상에 선정했다. 전북 정읍이 고향인 정씨는 전남대 국악과(97학번)를 졸업했다. 지난 2016년 임방울국악제에 처음 출전해 최우수상을 받았고 지난해 명창부 우수상을 거쳐 세 번째 도전 만에 대상의 영예를 거머쥐었다.

판소리 일부분 최우수상(문화부장관상)은 심청가 중 '눈 뜨는 대목'을 부른 김정훈(전북)씨가, 가야금 병창부 최우수

상(문화부장관상)은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를 부른 김서운(광주)씨가 받았다.

농악 부문 대상(국회의장상)은 전남 우도농악담양보존회가 차지했다.

시조 부문 최우수상(광주시장상)에는 완재사설시조 등을 부른 양연화(전북)씨가, 무용 부문 최우수상(문화부장관상)은 이매방류살풀이로 참가한 하나경(경기)씨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올해 부문별 시상금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수상자 72명에게 총 1억7790만 원의 상금을 시상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송순섭 명창 판소리 중국에 울려 퍼졌다

아리랑TV 타이얼왕서 합동공연

고흥 출신 송순섭 명창의 판소리가 중국 산둥(山東)성 남부의 자오정(濰莊)시 타이얼왕(臺兒王)에 울려 퍼졌다.

아리랑TV는 지난 10-14일까지 해외문화홍보원 후원으로 한국의 전통문화 대가 11인과 함께 타이얼왕(臺兒王)에서 중국의 전통문화대가들과 함께 문화포럼과 합동공연을 펼쳤다.

이번 방문에는 판소리 인간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 판소리 예능보유자) 송순섭 명창을 비롯해 정양모 전국립박물관 관장, 장남원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관장, 한국동양철학회 이광호 회장, 경북 안동 하회마을 류성룡의 15대손인 류창해 선생 등이 참

여했다.

2만㎡ 부지에 다양한 상업시설을 갖춘 테마파크 타이얼왕 고성에서 열린 이날 공연에서 송명창은 박근영 고수(대전시무형문화재 제17호 판소리 고법보유자)의 장단에 맞춰 호쾌한 '적벽가' 중 '제갈공명이 동남풍을 비는 대목'과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를 불렀다. 또 '동방 지혜, 화이부동'을 주제로 열린 문화포럼에서는 이광호 회장 등이 한국과 중국의 도자문화와 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3시간 넘게 진행된 행사는 봉황위성TV를 통해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 봉황위성TV는 아리랑TV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 '문화대관원' 한국여행 6부작 시리즈를 제작하기도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계간 시산맥 감성기획시선 당선 권상진 '눈물 이후' 출간

계간 시산맥의 제18차 감성기획시선 공모 당선 시집인 권상진의 '눈물 이후'가 나왔다.

모두 60여 편의 작품은 관념과 의미의 상징보다는 일상에서 길어올린 이미지로 형상화한 시들이다. '아는 사람', '원발', '지계', '새', '집밥' 등 각각의 작품은 삶에서 만날 수 있는 소재들로 친근함을 준다.

그러나 시의 이면에는 자신만의 깊은 사유가 드리워져 있다. 일견 평이해 보이는 언어들이 만나 피워내는 의미와 조화는 간단치 않다. 전형적 문학평론가는 "시적 인식과 정서의 자유로운 교감을 통해 마침내 자각 속에 생명체로 존재하는 시는 깨달음의 미학"이라고 표현한다.

"가능할 수 없던 슬픔의 양/ 그 자리에 울컥 눈물이 고이고 나서야/ 잠았던 슬픔의 눈금을 읽을 수 있다/ 허하던 마음에 고여 든 평행수/ 기울어진 어제의 날들은/ 눈물 이후에야 비로소 균형을



잡는다"

표제시 '눈물 이후'에서 보듯 시인은 눈물을 일컬어 "평행수"라고 칭한다. 생의 균형을 잡아주는 기제다.

김학중 시인은 해설에서 "균형을 이끌어내는 이 '평행수'가 바로 눈물의 다른 이름"이라며 "이 이름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대의 문제들을 다르게 마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된 것"이라고 평한다.

한편 권상진 시인은 제21회 전태일문학상에 '영화의 날들이', 제10회 북송아문학상에 '별자리'가 당선돼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한국작가회의, 문학동인 'Volume'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원불교 새 종법사에 전산 김주원 종사

원불교 새 종법사에 전산 김주원(사진) 종사가 선출됐다. 종법사는 대종사 법통을 이은 원불교 최고 통치자로 교단을 주재하고 대표한다.

원불교는 18일 열린 제234회 임시수위단회에서 전산 김주원 종사를 교단 최고지도자인 종법사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종법사의 임기는 6년이며 한차례 연임 가능하다.

전주 출신의 김 종사는 전주고를 졸업한 뒤 원광대 원불교학과에 입학했다. 1967년 출가했으며 원불교 기획실과 총무부장, 경기인천교구장,



교정원장, 중앙종도훈련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영산선학대학 총장을 맡고 있다.

한편 새로 선출된 종법사는 11월 3일 중앙교의회에서 추대되며, 취임식은 오는 11월 4일 교단 총회에서 열린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투자자 모심

- V 지역 - 경기도 양평
- V 투자금 - 3억원 이상
- V 수익 - 월15% 이상
- V 기간 - 1년6개월 정도
- V 보장 - 근저당/소유권 이전

문의. 010-3605-5000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시혈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아!!!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010-3598-7080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